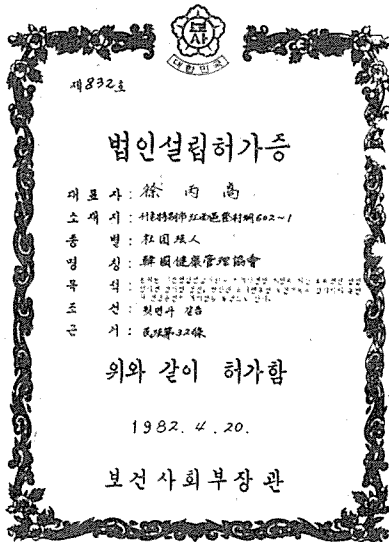


## 보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설립허가

— 지난 4월 21일자로 —



보건사회부는 지난 4월 2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설립을 정식 허가했다.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허가서는 허가증, 정관, 임원취임 승인서를 첨부했으며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과 정관, 민법 및 보사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82년 4월 29일자로 법원 등기를 완전히 마친바 있다.

### 건강관리협회 —

13개소에 시도지부 설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각 시도 별로 검진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82년도에는 우선 서울권에 1개소, 83년도에 2개소, 84년도에 2개소, 85년도에 2개소, 86년도에 3개소 등 총 5개년 계획으로 10개소를 세울 계획으로 있다.

### 건강관리협회 —

전국을 6개 진료권으로

보사부는 건강관리협회 진료권을 6개 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간에 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한 진료권내 의료기관을 질병별 전문기관화 하여 진료키로 했다.

진료권은 서울진료권을 위시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개 진료권이다.

## 자궁암·고혈압 등 7종목 관리

—건강관리협회, 사업계획안 마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앞으로 운영될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와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성인병의 효과적관리를 위하여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는 별도로 세워진 건강관리협회는 앞으로 비전염성질환검진센터로서 활용되게 된다.

사업비는 국고보조 및 협회의 자체확보예산으로 질병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국민보건의 새로운 문젯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전염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임상병리적 검사 및 검진 역학적 조사연구 및 보건계몽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주요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1. 비전염성질환 환자의 조기발견으로 발견환자 전문치료기관에 알선
2. 비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홍보, 계몽)
3. 비전염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 전개
4. 국민보건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
5. 국민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개발
6. 종합검사시설 설치운영 및 각종

질병검사 등이다.

검사항목으로 보면

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미생물학적검사, 환경위생학적검사, 조직병리학적검사, 대사성검사, 기관기능검사, 기타검사 등이다.

연도별 사업목표량은 다음표와 같다.

— 연도별 사업목표 —

단위 : 백명

목 표	계	'82	'83	'84	'85	'86
계	8,840	340	1,020	1,700	2,380	3,400
자궁암환자관리	5,200	200	600	1,000	1,400	2,000
고혈압 "	520	20	60	100	140	200
뇌혈관 "	520	20	60	100	140	200
심장병 "	520	20	60	100	140	200
당뇨병 "	1,560	60	180	300	420	600
만성신장병 "	130	5	15	25	35	50
간경화증 "	390	15	45	75	105	150

健協 총예산 —

국고보조 : 7억 5천 2백만원 (5년간)

자체예산 : 3억 7천 5백 8십여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자궁암 등의 관리를 위해 5년간에 걸쳐 국고보조 7억 5천 2백만원을 82년 부터 86년까지 보조받기로 하고 자체 예산 3억 7천 5백 80여만원을 82년도 예산분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검사사업, 홍보사업, 요원훈련사업, 관리운영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 82년도 보건사회부 춘계 체육대회

寄協은 축구우승, 배구 준우승



한국기생총박멸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나협회등 보건사회부 민성병과 산하 보건단체가 참가하는 82년도 보건사회부 춘계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양주군 소재 善陵에서 열려, 보건단체간의 친목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한몫은 톡톡히

했다.

만성병과가 주관하고 「체육의 날」의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거행된 이날 체육대회는 보사부 만성병과 趙炳倫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가하고 기생총계, 나병계, 결핵계는 각각 소속 단체와 합류하여 게임에 출전해서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루기도 했다.

조병윤 만성병과 과장의 인사말, 각단체 사무총장소개 등에 이어 3제 단체 대항 축구대회, 배구대회, 장기자랑 등이 있었는데 기협은 장기자랑에서 여직원들이 에어로빅댄스와 폭댄스를 추어서 만장의 인기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또한 기협은 축구에 우승, 배구에 준우승을 차지하는등 종합우승에 버금가는 전적을 올려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

이날의 전적은 다음과 같다.

○ 축 구

우승 : 寄協      준우승 : 癩協  
3위 : 結協

○ 배 구

우승 : 癩協      준우승 : 寄協  
3위 : 結協